

흥행 성공의 열쇠... 끝까지 설득해 참가 이끌어야

광주세계수영대회
GWANGJU 2019
50일 앞으로

〈2〉 북한 선수단 참가할까

개막을 50여일 앞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는 수영 단일종목 대회인데다 박태환을 비롯한 스타플레이어 부재 속에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이중고(二重苦)를 뚫고 흥행 성공을 위해선 북한 선수단 대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이번 대회 슬로건이 'Dive In To Peace'(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점을 되짚으면서 정부당국이 경색된 북미관계 해소와 대회 성공을 위해 북측에 선수단은 물론 예술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는 오는 6월 13일 수영대회 선수등록 마감 시한까지 북한의 대회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 역시 대회 출전권이 부여된 국제수영연맹(FINA) 회원국인데다, 내년 도쿄올림픽 수영 종목 출전권의 43%(163개)가 이번 대회에 걸렸다는 점에서 조직위는 남북미 긴장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선수단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광주수영대회지원본부 이돈국 대회지원과장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수영을 잘한다.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 여부는 남북미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그러면서 "이용섭 광주시장

열어붙은 북미관계 해소 기회

조직위, 숙박·경호 대책 등 협의

엔트리 마감까지 가능성 열여둬

도, 대회 조직위도 북한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엔트리 마감 임박해 북한 선수 참여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국제수영연맹 대회는 꾸준히 참여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치러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2회 연속 선수단을 참가시켰다.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에선 다이빙·싱크로나이즈·경영 등 3개 종목에 선수 18명(임원 7명)이 출전,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대회 역시 다이빙·싱크로나이즈·경영 등 3개 종목에 선수 17명(임원 8명)이 출전, 은메달 1개와 동메달을 따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선수단을 파견했다. 2002년 부산아시아대륙, 2003년 대구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대륙,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보냈고, 이 가운데 지난해 8월 개최된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회에는 응원단을 파견했다.

성백유 대회 조직위 대변인은 "평창때와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북한 역시 국제수영연맹 회원국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이다."

엔트리 마감까지 참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영택 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역시 "긴장된 국면 해소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수영대회 선수단 파견이라는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회원들이 한빛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며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조직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참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회 참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회 조직위는 국경연계 등 관계당국과 북한의 대회 참가를 전제로 숙박·수송·경호 대책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대변인은 "북한 선수들이 오면 다른 참가국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회선수촌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평창 올림픽과 마찬가지로"라며 "예술단, 응원단 파견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책은 관계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양우 문체부장관 내일 광주 방문 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남부대 수영장 등 둘러봐

이용섭 시장 일본대사 접견

日 스타선수 참여 독려 요청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막 D-50일이 되는 오는 23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 남부대 국제수영장과 야외 수구경기장, 미디어센터 등을 둘러보며 손님맞이를 앞둔 대

회 시설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김지용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과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 광주 방문에 앞서 21일 오후 이 시장은 광주시청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 스타선수를 비롯한 일본의 많은 선수들과 수영애호가들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역사적 교류를 해온 이웃나라로

올 7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내년에는 일본 도쿄올림픽, 2021년에는 후쿠오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면서 "수영 강국인 일본에서 수영스타와 수영애호가 등 많은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는 "광주세계수영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고, 일본 선수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면서 "수영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한-일 간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매뉴얼 오류인가 가동중인 하루만의 정지 부담 때문인가

한빛원전 1호기 12시간 누적 가동 중단 원인 놓고 의견 분분

대체 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한빛원전)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즉시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장장 12시간 가까이 원자로 시험가동을 멈추지 않았을까. 원전업계에서는 "현행 원전운영기술 지침서가 올바로 규정되지 않았다. 지침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원안위로부터 가동 승인 받으니 하루 만에 발전소 정지 사유가 발생했 탓에 무리하게 운전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 제어능력 시험 중 빗어진 실수로 불과 1분 사이 노외중성자속 출력(노심출력)이 제한치(5%)를 크게 웃도는 17.2%까지 치솟았다. 원전운영기술지침서(매뉴얼) 규정대로라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켰어야 했는데

도 한수원이 같은 날 밤 10시 2분까지 원전 시험가동을 계속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이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제어봉 교정(편차 조정)을 하던 중 운전원이 제어봉을 인출해 출력이 급상승했고, 당시 노외중성자속 출력이 4.8%에서 1분 사이 17.2%까지 제한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실은 즉시 인지했다"며 "문제는 현행 지침서는 기준점을 '출력의 5%'라고 명시했는데, 당시 저희가 확인한 건 노심출력(17.2%)이어서 가동 정지 사유가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병섭 박사(원자력공학)는 "현행 지침서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1986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작성하고, 원안위가 승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간적인 변화치가 포착되기 힘든 열출력이 아니라 실시간 출력이 확인 가능한 노심출력으로 기준점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기준도 열출력으로 같다. 지침 잘못은 없다. 그걸 우리가 한 번도 적용해본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전 전문가인 이정훈 기술사(기계공학)는 "제어봉 이상으로 출력이 급상승한 시각이 오전 10시30분이고,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기술진이 오후 3~4시쯤 현장에 도착해 즉각 가동 정지 사유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가동이 정지된 것은 밤 10시"라며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이 능력이 안 되면 원안위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원안위 역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한빛원전 부실 안전관리 규탄

전남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광주일보 5월 21일자 1·3면)과 관련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전력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는 안전 규제와 감시 활동에 있어서 지자체 참여 등을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빛원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수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험에 놓였으며,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잦은 정지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그 횟수도 늘어 도민 불안감이 높

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법령 위반을 감독하고 사고에 대응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온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해당 지자체가 안전 규제와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트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특가가 쏟아진다! 빨리 GET 하세요!♥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499,000원~ / [3박4일] 69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6/12,19일 출발 34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5월 출발 특가 499,000원!!
- ◆ ★광주 출도착★ 대구/위해/백두산(북파+서파) 850,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6일 부터 총 10항 출발

[나트랑/달랏] 3박5일 7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뽀빠리*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6/12,19일 출발] 초특가 뱃부&유후인 3일 34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뱃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뱃부&유후인&야나가와 뱃놀이 4일 699,000원~

무안 ↔ 몽골 *가릭은, 샤희원수*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무안 ↔ 달랏(비엠텡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출발확정 5/24, 31 출발 동경&하코네 3일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57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2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정통] 499,000원~ / [품격] 69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 ONLY 2박4일 599,000원~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2박4일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이 1인 기준, 여행비용 가입(여행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부수 이윤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액 가입 일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비(음식,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배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어 JOY TOUR**